

Art

아트인컬처
December 2014

Special Feature /
한국의 회화 13인×13인
Matching & Ma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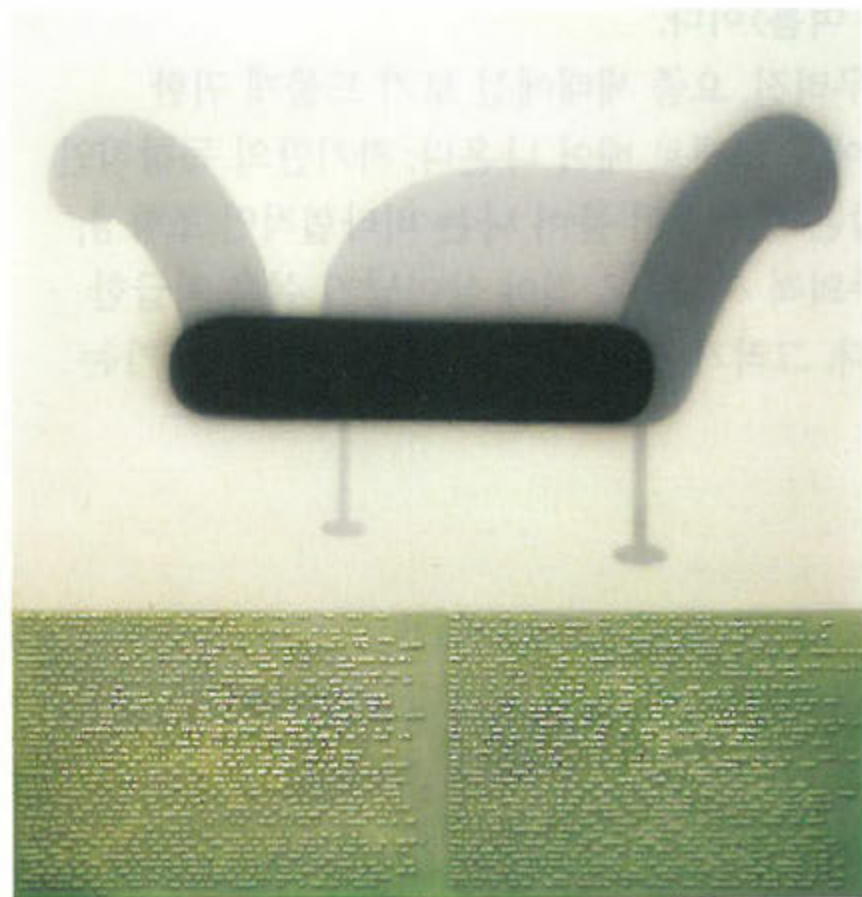
Abroad/
요코하마트리엔날레
타이베이비엔날레

Market/
런던 Frieze, 파리 Fiac

Theme/
독립 출판, 세계 지형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Essay/
단색화 '촉각적 보기'

이기봉 → 곽한울



위 · 이기봉 <지속하기 위하여—
기억> 캔버스에 아크릴릭 및
혼합재료 180×180cm 2009
아래 · <Bubble Reading—
The Shallow Facade> 아크릴
린넨, 혼합재료 180×180cm
2005

환영의 회화, 유령 이야기

나의 회화적 '방법'은 작가의 의식에 주어지는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상들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특정의 기계적 속성으로 구성되길 바란다. '그림 같은 어떤 것'으로서의 감각 기계 '입체적 환영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그림'으로서의 몽상 기계'와도 같은... 그것은 이 세계를 마주하는 지각 작용처럼 나의 회화를 유동적 메커니즘으로서의 신체로 바라보고 싶다는 말이다. 이러한 방식은 그리 새로운 방식이 아니다. 아마 회화를 바라보는 감각 공학적 태도이거나 다소간 다다적인 방식일 텐데, 다른 점은 내 앞에 지각된 세계와 신체의식의 문제에 관한 그것 이상의 과제 수행 방식일 것이다.

누군가 말했던가, "사실적 환각을 다루는 화가들은 세계의 살을 가공하는 자"라고(이말 또한 매우 공학적이다). 그의 말을 빌려 내가 생각하는 회화적 속성을 '입자적 가공', '주름적 가공'이라는 다소간 즉흥적인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이 유용한 방식이 될 것이다. 입자적 가공으로서의 그것은 조르주 쇠라를 연상하면 될 텐데, 그것은 사물과 공간의 경계를 흐트리고 주체의 시야를 흐리는 '모든 것이 입자로 분쇄되기', '대기와 심연으로 산포되기'와 같은 파노라마적 특징 때문에 필연적으로 풍경적이다. 또한 그 풍경적 배치로 인해 연극적(혹은 시학적)이며, 유동적 속성으로 인한 시간성은 부수적이다. 이 세 가지 속성의 회전은 선풍기의 그것처럼 환영을 낳게 되는데, 나는 그것을 유령(ghost)이라 부른다.

회화의 다른 이름으로서의 '주름적 가공' 그것의 모습은 고희의 얼굴 표면처럼 날카롭게 솟아오른 대지적 특징을 가진다. *곽한울 작가는 '주름적 가공'의 방법을 취하는데, 달의 뒷면처럼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을 이미 본 것처럼 인상을 주는 효과들을 흘려 낸다. 이 방식은 우울한 은유들로 가득 찬 주름들 사이에서 불신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을 섬세하게 조각해 내는 신체적 방식이다(보기 드문 태도). 이것은 사실적 효과를 넘어서는(정확하진 않겠지만) 리비도적 자기 확신으로서, 잠재된 세계의 모습을 신체성의 조건으로 드러내려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이 바로 곽한울의 회화에 내재된 독특한 환영적 조건이며, 추천의 이유이기도 하다. 회화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환영들 때문에 다시 살아남는다. / 이기봉